

2016년 의령군의회 공무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연 수 개 요

기 간 : 2016. 04. 25.(월) ~ 04. 28.(목) 【3박4일】

방문국가 : 대만

인 원 : 총 15명(의장 1, 의원 8, 보좌직원 6)

연수내용

- ▶ 군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실태 파악 및 현지 전문으로 우수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
- ▶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을 파악하여 의령군의회 의원의 역량을 제고
- ▶ 농업분야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모색



의 령 군 의 회

목 차

I. 출 장 개 요	3
□ 연수자 명단	3
II. 주요일정표	4
III. 방문국 개요	5
IV. 방문현장 출장내용	8
□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8
□ 타이베이 시의회	10
□ 오결향농회	14
□ 화련 농업개량장	17
V. 방문후기 및 시사점	20

연수목적 및 배경

- 대만의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군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 현지 전문으로 우수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을 의정 활동과 정책방향 도출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기 간 : 2016. 04. 25.(월) ~ 04. 28.(목) [3박4일]

□ 방문국가 : 대만

□ 연 수 단 : 총 15 명 (의장 1명, 의원 8명, 직원 6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의령군의회	의 장	오 용	의회사무과	과 장	이 호 기
	부의장	김 규 찬		전문위원	여 상 규
	운영위원장	강 영 원		의사담당	노 익 환
	자치행정위원장	손 태 영		직 원	이 홍 진
	산업건설위원장	전 병 원		〃	김 성 원
	의 원	김 철 호		〃	정 송 아
	〃	허 수 석			
	〃	문 봉 도			
	〃	손 호 현			

Ⅱ

주요일정표

□ 연수기간 : 2015. 04. 25.(월) ~ 04. 28.(목) [3박4일]

□ 연 수 국 : 대만

일 자	지 역	시 간	주 요 활 동 내 용	비 고
04.25. (월)	의령 부산 타이베이	05:30 08:30 13:00 15:3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령군의회 집결 후 김해공항으로 이동 후 수속 ◦ 김해국제공항 출발 / 타이베이 향발 ◦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방문 ◦ 타이베이 시의회 방문 ◦ 호텔 투숙 및 휴식 	
04.26. (화)	타이베이	10: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결향농회 방문 ◦ 호텔 투숙 및 휴식 	
04.27. (수)	타이베이 화련 타이베이	11:00 16:00 20:30 2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호 열차 이용해 화련으로 이동 ◦ 화련 농업개량장 방문 ◦ 자강호 열차로 타이베이로 이동 ◦ 호텔 투숙 및 휴식 	
04.28. (목)	타이베이 부산 의령	11:35 15: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베이 출발 / 부산 향발 ◦ 김해국제공항 도착 후 의령으로 이동 ◦ 의령군의회 도착 	

대 만



◇수도 : 타이베이(Taipei, 台北)

◇면적 : 35,980km² 세계139위 (CIA 기준)

◇인구 : 인구약 23,359,928명 세계51위
(2014.07. est. CIA 기준)

◇GDP : 5,088억\$ 세계23위 (2016 IMF 기준)

◇언어 : 중국어(만다린), 타이완어, 객가어

◇종교 : 불교(35%), 도교(33%), 개신교(2.6%),
천주교(1.3%), 이슬람교(0.2%) 등

◇민족 : 민남인(74%),外省인(12%), 객가인(12%),
원주민(2%)

개 요

○ 공식국호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지만, 올림픽 대회 또는 국제 기구에 참가할 때는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라고도 한다.

○ 타이완의 수도는 타이베이(臺北, Taipei)로, 타이완 섬 북부의 분지 내에 위치해 있고, 인구는 약 260만 명(2008년 9월)이며, 면적은 약 272km²이고, 행정 구역은 12개 구(區)로 구분되어 있다.

○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청일 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된 국가이다.

정 치

○ 국가형태 : 입헌민주공화제

○ 정 당 : 2008년 1월 12일 제7대 입법위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당 81석, 민진당 27석, 기타 5석 등이다.

○ 지방정부 : 대만의 행정구역은 크게 대만성과 복건성, 직할시로 나뉘며, 2010년 12월 25일에는 일부 주요 도시가 직할시로 통합/승격되면서 대만의 지방행정구역이 복건성과 대만성(3시(市) 14현(縣)), 5개 직할시로 재편되었다.

경 제

○ 1인당 GDP : 5,088억\$ / 세계 23위 (IMF 2016)

○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 농업 1.7%, 광공업 25%, 서비스업 73.3%이다. 경제는 제조업 · 무역 · 서비스업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발달하였다.

○ 2001년 11월에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과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여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률(2001년 3분기 -4.2%)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역사 및 문화

○ 타이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 1945년 10월 25일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새로 이주해온 외성인과 원주민인 본성인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어 1947년 2월 28일에는 '2·28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그 뒤 1949년에는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난징에 있던 중화민국정부를 타이완의 타이베이 시로 옮기면서 오늘날까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타이완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인 중국식 건축물과 20세기 초의 일본식 건축물 및 근대 서구식 건축물 등 어떤 형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혼합양식의 건축물들이 많다.

○ 손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놀음은 과거의 종교적 의미를 아직도 갖고 있지만 풍성한 농산물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보통 여름에 무대에 올려지며 신의 가호를 기원하거나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공연한다.

교육 및 기타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등 우리와 동일한 의무교육화

○ 15~18세까지의 중등교육 단계로는 3년제 고급 직업학교와 종합 고등학교, 5년제 전문대학의 3종류가 있다.

○ 의무교육은 1968년부터 9년이며 의무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 진학하는 직업교육 과정이 있다.

○ 대한민국과의 관계 : 1948년 8월 외교 관계를 수립

1992년 8월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후 단교

1993년 비공식 관계를 설정한 후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상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 방문일시 : 2016년 4월 25일 13:00

○ 개 요

-1993년 대표부 설립 (2014년 4월 현재 대표 : 조백상)

-직원 : 외교관 9명(군사연락관 포함), 행정직원 16명

-유관기구 : 주 타이베이 한국무역관(KOTRA),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 지부, aT, 한국학교(타이베이, 까오슝)

-대만거주 한국인 약 4,000명, 대만지사 설립 한국기업 55개

-6대 협회 : 타이베이, 까오슝, 타이중 한인회, 한상회, 한경회, 한국선교사 협회 등

○ 주요활동

-당 대표부는 2015.10월 3일간 국경리셉션, 세계경제 추세 및 대만-한국 산업 협력 포럼, 친선 경기 대회, 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우호주간 행사를 개최함

-제2차 한국과 대만 인문교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제패망 70주년을 계기로 과거를 조망하고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당 장개석 총통과 김구 임시정부 주석간의 형제애적 유대관계, 임시 정부 지원 등 역사적 사료를 소개함으로써 정치, 외교적 제약 하의 관계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인문학적 저변을 확대한다.

○ 방문내용

-2004년 한국과 대만 간에 민간항공협정이 체결되고 2012년 김포-송산 공항의 새로운 노선과 '꽃보다 할배 대만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대만을

찾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여권, 재외국민등록, 병역, 가족관계등록, 사증, 공증, 재외 국민선거 등의 업무를 보고 싶을 때 대사관, 영사관을 찾으려면 되지만 대만에선 대표부(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를 찾으려면 편리하다.

-왜 대만에서는 대사관, 영사관이 아닌 대표부를 찾아야 할까? 우리나라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다가 해방이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시행해 외교권을 보장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외교권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48년 11월 대통령령 제29호로 '외교관 및 영사관직제'를 제정하여 재외공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재외공관이란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된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및 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방문소감

- 1992년 8월 24일 대만과 한국 사이에 국교를 단절했지만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더라도 여전히 대만과 한국 사이에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고,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가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고마운 기관인 것 같다.

-대만에 여행을 가거나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들이라면 각종 신고 및 행정 관련한 업무를 모두 이 타이베이 한국대표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꼭 필요한 존재다.

-교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각종 공지사항이나 주의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며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서 도와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대표부



현장사진



타이베이 시의회

○ 방문일시 : 2016년 4월 25일 15:30

○ 개 요

- 의원정수 : 62명(여성의원 21명, 중국국민당 31석, 민주진보당 23석, 기타 8석) 정당 비례대표는 없으며 여성의원이 4명중 1명이 있어야 함

-임기: 4년, 시장은 30세, 시의원은 23세 이상이 피선거권을 가지며, 시장은

재임만이 가능하나 시의원은 임기의 제한이 없음

-특징:시의원 62명 중 여성의원이 21명으로 4명중1명꼴이며 여성할당제 25%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5명 중 1명이 여성인 경우 득표율이 낮아도 당선되도록 하는 법으로 33%가 넘는 여성의원의 비율

-위원회 : 9개 (상임위원회7개, 특별위원회2개)

-정기회 : 매 6개월에 1번 소집, 매회기는 70일(80일까지 연장 가능)

-임시회 :시장, 의장 혹은 의원 총수의 1/3이상 요구시 소집

-의회의 기능은 입법권, 질문권, 심사권(예산) 등

○ 방문내용

- 타이베이 시의원 선출방식은 4년에 한 번 선발하며, 제12차 시의원(2014. 12. 25. ~ 현재)은 2014년 11월 29일 직할시 시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국민당 총 28석, 민진당 27석, 신당 2석, 친민당 2석, 대만연합 1석, 민국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총 63석이다.

-2014년 중화민국 지방 공직자 선거(2014년 중화민국 직할시의원 및 현, 시의원 선거)는 11. 29(토)거행, 중화민국 직할시(6곳)의 직할시장, 직할시의원 및 이장 선출, 첫 원주민장 및 구민대표 선출

-대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방선거로 11,130석의 지방공직자, 19,762명의 후보 등록

-국민당이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고 작년에 당선된 국회의원2분을 포함 300명으로 타이베이에 여성의원이 가장 많다. 1,500표면 시의원 당선이 보장되는데 여성의원은 3,500표를 차지한다.

○ 주요 질의 · 답변

☐ 회기기간은 어떻게 되며 회의에 의원이 다 참여하여야 하는지?

☑ 4~6월 70일정도, 9~12월 80일 정도의 회기기간을 가지며, 3,4층 의원 사무실에서 다룰 수 있으니 현장에 갈필요가 없다.

☐ 한국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지?

☑ 항상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에서 대표로 표출하고 타이베이 시 정부는 특별예산을 이용해서 직시적으로 해결가능하다.

☐ 최다선의원은 몇 명이 있는지?

☑ 현재 의장인 국민당의 우비주 의장이 역대 최대로 9대째 36년을 의장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다.

☐ 30대 초반도 의원이 계시던데 전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는지, 우리 처럼 비례대표가 있는지?

☑ 비례대표는 없고, 전부 다 선거로 당선된다. 그 전에 당에서 먼저 선출을 통과해야 한다.

☐ 실업률이 3% 초반이던데 교육이나 대학 진학률은 어떠한지?

☑ 국민의무교육은 12년으로 약 2년 전에 확정되었다. 대학입학률은 100%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다.

○ 방문소감

-타이베이 시의회에 들어서서 전광판에 우리를 환영해 주는 글귀가 있어 반가운 마음부터 들었다. 운이 좋게 회기 중이라서 회의진행의 전반을 볼 수 있었다. 모니터로 보이는 의원들의 열띤 발언을 하는 모습이 의정발전에 힘을 실어준다.

놀라운 점은 여성의원은 20명(33.3%)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4명마다 1명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출하는 당선보장제이다. 이 법안은 민진당이 16년 전 발의하여 1/10부터 시작, 1/7→1/5→1/4로 점차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은 1949년 건국 당시 헌법에 모호한 조항의 ‘여성 차별금지’가 아닌 ‘여성참여보장’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타이베이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입법권 및 재정, 행정감독권을 소유한 만큼 공정한 제도를 교류하며 우리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오결향농회

○ 방문일시 : 2016년 4월 26일 10:00

○ 개 요

-위치 : 행정구역 이란현의 오결향으로 타이베이에서 50km 떨어진 도시

-면적 : 1500ha

-농산물 : 여름(수박, 땅콩, 마, 토마토 등)

-주변관광지 : 국립 전통예술센터, 태평양을 마주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확보,

-7월에 수확하면 8월에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데 심한 태풍 때문에 전국에 유일하게 이모작이 아닌 일모작밖에 못하는 지역이다.

-육묘는 1~2월에 시작하고 냉수와 온수로 재배하기 때문에 농약이 필요없고 각 지역에 필요한 곳에 기계로 운송한다.

-모내기는 2~3월에 8개 동시에 하는 농기구 사용하며 쌀로 여러 가지 개량한다. 매년 신품종,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새로운 노하우 기술이전, 실내외교육으로 실제로 농민에게 도움 이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개량장에 새로운 기술이전을 받아 색깔이 들어 간 벼농사를 통해 관광 상품으로도 유명하다.

○ 방문내용

-완벽한 과정을 통해 농약을 측정하며 쌀이 정미장에 들어오기 전에 농약이 남았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6~7월에 수확한다.

-거의 다 일본이나 외국에서 수입농기계를 쓰며 농민들이 산다면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구매가능하고 여러 농가가 같이 구매해 낮은 이자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농기계를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1.2%로 농민에게 대출해 준다.

-수확 후 젖은 상태의 쌀은 정미장 주변기계로 말리고 가공하게 된다. 15℃에 저장하고 쌀을 가공한다. 식품안전품질증서인 CAS, HACCP, ISO2200을 통해 생산과정과 가공과정을 알 수 있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가공한다.

-정부와 같이 합작하여 연구개발로 쌀 위스키, 쌀가루쿠키, 단호절 절기에
앞에 싸서 떡처럼 찌서 쌀의 가치를 상품화 시켜 판매하고 있다.

-홍보팀을 따로 만들어서 슈퍼마켓, 유기상점, 필요로 하는 회사에 농산물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관광농업으로 발전하는 좋은 기회를 갖는다.

○ 주요 질의·답변

문 600평 가진 농민은 수입이 얼마 안 될 건데 나머지 수입원은?

답 너무 면적이 적으면 1년에 일모작을 하고 600평을 대농에게 부탁한다.

문 축산에는 어떤 방면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답 평원이다보니 축산보다는 양식이 유리해서 양식을 많이 한다. 새우나
전 세계 양식의 1/3을 차지하는 다금바리 양식을 많이 한다.

문 잡초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답 손으로 하나씩 뽑는다. 잡초가 별로 안 나오는 이유는 개관 시 밭갈
때 판판하게 하면 잡초가 덜나온다. 농민의 경험이자 노하우다.

문 일모작만 하면 경쟁률이 없을 것 같은데 가공하면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지?

답 20년 전에 여기도 이모작을 했는데 품질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났다.
하지만 불리한 것을 기회로 잡아 일모작으로 변경하고 쌀의 품질을
높였더니 전보다 훨씬 좋아 졌다.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이 좋아
졌다.

○ 방문소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초록의 논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다. 처음에는
일모작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좋은 평지를 가지고 일모작
밖에 안할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태풍 때문에 7월 이후의 농사를 하지 못하는
악조건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해가 됐다. 이런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모작의 고품질 쌀을 생산한
점이 끈기의 대만인을 대표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쌀을 갈아서 쿠키나 크래커 같은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서 상품화에 주력함으로써 쌀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상품화된 쌀을 약혼식 같은 경사스러운 행사에 포장이 예쁘게 된 쌀 상품으로 직접 홍보하는 노력이 더해져서 대만 농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오결향농회

현장사진



화련 농업개량장

○ 방문일시 : 2016년 4월 27일 16:00

○ 개 요

-행정구역 이란현 및 화련현을 포함하여 도지면적은 약76만 7천ha이며, 경지면적은 약7만3,600ha이다. 총 인구수 81만 4천명, 농업인구수는 약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농장의 조직편제에 있어서는 업무단위에 작물개량과, 작물환경과, 농업홍보과, 난양지부농장이 있다.

-편제된 직원은 기술인원 41명, 행정인원 9명, 기능공과 견습공 47명으로 모두 97명이다.

-기후는 이란, 화련 지역 평균기온 각각 섭씨 22.7℃ 및 22.9℃이고 전부 7월이 가장 높으며 평균 26.8℃, 1월 최저평균은 19.7℃이다. 연 강수량은 이란현 2,201mm, 화련현 2,219mm이고 전부 9월이 가장 많으며, 또한 화련은 12월, 이란은 3월에 강수량이 가장 적다.

-매월 일조시간은 7월이 가장 길고, 약 206시간이며 11월부터 3월까지가 비교적 짧고 대략 60시간에서 75시간 사이다.

○ 방문내용

-화련현의 경지토양은 석회질편암 충적토가 많으며 토층이 얇고, 자갈이 많고, 땅이 비옥하지 않아 척박하다. 이란현의 토양은 점판암 충적토이며 일부지대는 배수가 좋지 않다.

-화련현의 주요 재배작물은 벼, 수박, 대만 유자, 옥수수, 죽순, 사탕수수, 원추리, 고사리, 매실, 자두, 땅콩이며 이란현은 벼, 파, 마늘, 대만유자, 차, 과일의 일종인

연무, 밀감, 죽순, 금귤, 수박, 배가 주요 작물이다.

-농장에서 배양된 작물의 신품종이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 중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벼 대경 16호가 매년 재배면적 2만ha를 초과하여 생산가치가 대만 돈 24억에 달하는 것에 그 예를 들 수 있다. 이밖에 현재 재배중인 홍보와 보급성의 가치가 유망한 잠재력을 갖춘 신작물품은 고구마, 한매라 불리는 장수매화, 원추리꽃, 백합, 붓꽃, 양치식물인 백출 등이 있다.

○ 주요 질의·답변

문 유기농이란 저농약, 합리적 농약을 쓴다는 친환경인 농업인데 친환경 농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 유기농 재배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대만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됐다. 유기농마트를 통해 팔 수 있고, 토요일에 현지에서 시장을 열어 유기농을 판다. 효과가 다른 정책보다 높고 대학 교환단체를 통해 팔 수 있다.

문 전국의 땅콩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답 가뭄 때문에 땅콩농장이 그리 크진 않고 나중에 심어진다. 전국의 땅콩은 서부에 많이 생산되는데 여기는 동쪽이라서 얼마 되진 않는다.

문 하우스 재배는 왜 안 하는지?

답 날씨가 습하고 하우스 건축 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또 태풍이 불면 하우스가 날아가서 피해가 심하다.

문 가장 소득을 올리는 작물은 무엇인지?

답 과수에서 계절마다 다양한 과일이 열린다. 과수원 경영수입이 좋은 편이다.

○ 방문소감

-농업개량장답게 벼, 사탕수수부터 과일까지 다양한 품종을 개량하고 일구어 낸다는 점에 감탄했다. 비와 강한 태풍을 때려야 뗄 수 없는 날씨 속에서도 이만큼 발전한 재배기술은 인정받을 농업기술이다.

-매우 불규칙한 기후변화에 내습하여 농업이 혹독한 어려움에 놓여있지만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자급하고 있는 쌀의 중요성을 전문적인 개량을 통해 발전시키고 있는 대만최고의 개량장을 방문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토요일에 현지에서 시장을 열어 유기농을 파는 방식은 우리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토요애를 보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토요애는 의령의 옥토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토요일은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으로 2016 제6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시상식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령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이다. 화련의 농업개량장도 우리의 토요애 처럼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만의 여성의원 당선보장제도

○ 한 국가의 선거제도와 여성의 의회진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특히 대만은 헌법에 명시된 여성당선 할당제도가 시대적 요청과 제도적 변천을 거치면서 여성의 의회진출은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다.

○ 대만에 있어서 최초의 여성당선보장제는 전체 국회의원 중 10%가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의회진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혁 노력을 통해 전국구 국회의원 수의 1/2에 대해 정당들이 여성을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 대만에서는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은 30%를, 또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3.6%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동북아 한중일 세 나라와 비교할 때 선두를 달리고 있다.

☞ 시사점

○ ‘여성의 의회참여확대’를 이슈화, 의제화, 법제화함으로써 형식적 평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평등을 이끌어낸 결과로써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여성의원들은 단지 여성들의 권익을 주창할 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대만 여성 지도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가능했음을 면밀히 보여주는 바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의 농업정책

○ 농업정책 기본방향

‘건강, 효율, 영속경영’을 농업정책 기본 방침으로 삼고 전 국민 농업정책을 실시하여 대만의 농업에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며 현재의 소비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과 지구의 자연 생태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함

대 농민 : 이윤, 효율, 복지(利潤、效率、好福利)

대 소비자 : 신선, 품질, 건강한 먹거리(新鮮、品質、食健康)

대 환경 : 경관, 에너지 절약, 영속(景觀、節能、保永續)

대 후손 : 정토(깨끗한 세상), 시장, 과학기술(淨土、市場、高科技)

대 지구 : 책임, 화해, 그린 에너지(責任、和諧、高綠能)

○ 주요 농업 정책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대만과 중국 양안 간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지만 마늘 등 관세쿼터품목 및 대만이 생산하는 주요 농산품 8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산의 수입제한조치 지속

- 중국으로 수출되어 10~15%의 관세를 적용받던 냉동생선, 바나나, 레몬 등 16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무관세 수출 합의

○ 소지주 대소작인 정책

- 경작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지주들의 농지를 정부가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인(소작인)에게 장기임대해 주는 정책

- 정부는 또한 농업경영인(소작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농업설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농업 생산원가 절감과 농업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이이 정책의 목적임

○ 자연재해 피해 과수농가 지원제도

- 「농업발전조례(農業發展條例)」 제 60조 : 농업생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는 현금보조와 저리대출로 농민들이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사점

○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농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농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농촌에 새로운 생명력 창조한다.

○ 양안 간의 합리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하고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방식을 통한 대만산 농산물의 내수 소비를 증진한다.

○ 소지주 대소작인 정책은 농업 노동연령의 연소화 장려와 연로한 지주가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농지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타사항

○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출·퇴근, 식사 등 이동이 잦은 편이기에 자가용보다는 스쿠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영하의 겨울이 없기 때문에 4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서 오토바이가 활용성이 좋다.

○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라는 느낌을 준다. 대부분 30년 넘는 건물들이 많고, 유지보수에도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부서질 것 같은 건물도 놔두는 이유가 대만은 태풍이 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도 금방 부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